

전후 여성문학 장의 형성과 『여원』

김양선*

차례

1. 서론
2. 전후 여성문단의 형성과 『여원』의 전략
3. 『여원』과 여성문학 장의 형성
4. 한국여류문학상과 여성문학전집, 여성문학 정전의 형성 원리
5. 결론

국문초록

본고는 전후 발간된 여성지인 『여원』이 여성문단의 형성과 여성문학 장의 형성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 규명하고자 한다.

첫째, 『여원』은 문학내적으로는 ‘여원신인문학상’ 제도를 통해 신진여성작가를 배출하고, 기존의 제2기 여성작가들을 심사위원으로 활용함으로써 여성문단의 형성에 기여했다. 문학외적으로는 여성작가들을 좌담회, 강연회, 시론, 독자상담란의 주요 필자로 포섭함으로써 여성 독자들의 요구에 부응하였다. 둘째, 『여원』은 그동안 여성문학사에서 배제되었던 제1기 여성작가들을 호명하거나 식민지 시기 여성작가들을 언급함으로써 여성문단의 ‘최초’를 밝히고자 하는 ‘기원에의 욕망’을 드러낸다. 즉 여성문학 장 내지 계보에 관심을 기울인 것이다. 셋째, 『여원』은 여성작가들의 장편소설들을 꾸준히 연재함으로써 195·60년대 문단의 또 다른 지배적 경향이라 할 수 있는 소설의 대중화

* 한림대 기초교육대학 강의 조교수

에 기여했다. 넷째, 전후 여성문단은 독자적인 조직인 <한국여류문학인회>(1965)를 결성하고, 『한국여류문학전집』을 발간하여 여성작가들을 결속시키고 여성문학을 제도화하는 데 영향력을 행사했다. 또한 『여원』은 ‘한국여류문학상’을 제정하여 여성문학 장을 공고히 하고, 여성문학 정전을 창출하고자 했다. 여성문학 장이 기존 문학제도와는 독립적인 문학상 제정을 하는 과정에서 소설편중 현상, 장편화, 상업성과 같은 일정한 경향을 띠었다는 점은 1960년대 문단 내부에서 ‘여성작가’와 ‘여성문학’이 소비되는 양상을 보여주는 예라 할 수 있다.

여성문학 장은 여성지라는 대중적인 매체를 통해 남성문학 장과는 다른 영역을 확보했다. 그 외중에 『여원』을 비롯한 여성지는 여성작가와 작품을 적극 활용하고 스스로 여성문학 장의 제도화를 꾀함으로써 다른 매체와 차별성을 꾀했다. 여성지와 여성문학, 여성작가의 공생은 전후 여성문학이 새롭게 성취한 영역인 것이다.

핵심어 : 여성잡지, 여성문단, 여성문학, 문학전집, 정전, 여성문학 장, 제도화

1. 서론

최근 여성문학연구의 뚜렷한 흐름 중 하나는 우리 근대문학사와 문학제도를 젠더 정치학의 관점에서 재구성하는 것이다. 근대문학사를 추동한 내적 동인을 여성(성)의 배제/포섭과 같은 젠더정치학에 입각해 분석하게 되면 근대문학 장이 탄생, 구성, 확립되는 과정에서 여성의 개입과 배제가 어떻게 이루어졌으며, 문학장 속에서 ‘여성’이라는 개념이 어떻게 구축되었는가를 알 수 있다. 그것은 여성문학이라는 장(場)의 형성, 여성문단과 여성문학 정전으로 대표되는 문학제도의 형성과 정착 과정을 분석하는 작업이기도 하다.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다음과 같은 문제를 제기해볼 수 있다. 첫 번

째, 여성문학사 서술에서 여성문단의 형성과 정착 등 문학제도 연구가 왜 필요한가. 요컨대 여성문학 제도라는 문제 설정은 타당한가. 두 번째, 여성문학 제도와 여성문단의 형성 연구가 포괄할 수 있는 연구 대상과 범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이다.

우선 근대여성작가의 탄생은 근대 문학제도의 형성과정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 근대 초기 매체를 통한 글쓰기 활동, 문학이 독자적이고 자율적인 제도로서 분화된 징표라 할 수 있는 1920년대 문학동인지와 문예지의 등장 이후 본격적으로 시작된 문학적 글쓰기 행위는 성별과는 무관하게 당시 근대적인 지식인 집단이 성취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근대문학과 문단은 여성들의 문학행위를 첫째, ‘작품없는 작가 생활’과 같은 비문학적이고 비전문적인 활동으로 폄하하거나, 둘째, ‘여류문단’, ‘여류문학’으로 명명하고 그것에 ‘감상적’, ‘낭만적’, ‘소녀 취향’과 같은 열등한 자질을 부여하는 차이와 배제의 정치학을 구사했다.¹⁾ 그 과정에서 남성들의 문학은 ‘여류’라는 수식어가 붙지 않는, 일반적인 대명사 ‘문학’을 자신의 것으로 지칭함으로써 자기 정체성을 확보했다. 때문에 근·현대문학사를 온전히 서술하고, 근대 문학제도의 실상을 파악하기 위해서 젠더적 시각은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근대문학제도의 형성과 정착을 젠더 위계질서에 입각해 일방적으로만 해석하는 것은 온당하지 않다. 필자는 다른 글에서 문단의 중심논리에 적극적으로 동조함으로써 여성문학의 장(場)을 형성하고 지배한 여성 작가군이 있었고, 때문에 여성문학 장의 형성에는 경합과 협상, 배제 등의 다양한 전략들이 작동했다는 점을 밝힌 바 있다.²⁾ 가령 1930

1) 이에 대해서는 다음의 글을 참고할 수 있다.

김양선, 『여성작가를 둘러싼 공적 담론의 두 양식』, 『한국 근대문학의 형성과 문학장의 재발견』, 소명출판, 2005. ; 심진경, 『문단의 여류와 여류문단』, 같은 책.

2) 김양선, 『일제 말기 여성작가들의 친일담론 연구』, 『어문연구』 127호, 한국어문교

년대 문학장과 저널리즘이 가장 선호한 작가들인 최정희, 모윤숙, 노천명은 나혜석, 김명순 등의 제1기 여성 작가들과는 차별화된 제2기 여성 작가들로 자기를 규정한다. 이들은 일제 말기 친일 담론을 이끌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적극적인 단체 활동으로 일본의 총동원 체제에 협력했다. 이들은 특유의 '여성적' 면모로 남성중심의 문단에서 일정정도 지분을 얻었으며, 친일 담론 역시 '여성성'을 전시 체제에 맞게 재규정해서 드러내는 데 주력했다. 이 작가들은 해방 이후 치열한 각축 끝에 새롭게 재편되었던 문단 질서에도 안정적으로 편입된다. 한국 전쟁기 중군작가 활동, 반공주의를 표방한 매체에서의 작품 경향을 살펴볼 때 이들은 국가주의에 협력하고, 여성성을 이러한 국가주의에 맞게 전유함으로써 여성문학 장을 지배했다고 볼 수 있다. 요컨대 여성문단이 제도적으로 형성된 시기가 1930년대이고, 여성 문단 내에서의 위계화, 서열화는 1950년대 전후(戰後) 시기까지 지속되면서 오히려 공고해졌다.

여성문학 장은 1960년대 이후 여성작가들의 등단 경로가 신춘문예, 여성잡지, 문학잡지 현상공모 등으로 다양해지고, 그에 따라 다양한 작가군이 등장하면서 변화하게 된다. 문학 장의 변화, 제도의 변화는 양식과 글쓰기 주제의 변화를 가져왔다. 이와 같은 점들로 미루어 봤을 때 일관된 관점에서 여성문학의 지속성과 변이 양상을 추출하기 위해서는 문학제도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 여성문학 제도라는 문제설정이 가능하고 또 필요한 이유도 이 때문이다.

본고는 이와 같은 문제의식에 입각해서 전후 여성문단³⁾의 형성과정을

육연구회, 2006.9.

3) 여성문단의 형성과정을 입체적으로 조망하기 위해서는 한국전쟁 기간 동안 여성 작가들의 사회활동과 글쓰기의 특성, 작품에 드러난 반공주의의 양상도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가령 여성성/모성성이 어떻게 전쟁독려, 반공주의와 연관되는지를 작가들의 다양한 글쓰기 활동(수필, 중군기록, 회고록 등)과 작품 분석을 통해 드러낼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측면은 차후 다른 연구를 기약한다.

살피고, 여성문학이 어떤 경로를 거쳐 제도화되었는지를 규명하고자 한다. 대상 시기는 잠정적으로 1953년부터 1969년까지로 설정했다. 오정희(1968년 『중앙일보』 신춘문예, 「완구점 여인」)와 박완서(1970년 『여성동아』 장편소설공모, 『나목』)의 등단이 여성문학 장에 이르면 1970년대적 특성이라 부를 수 있는 또 다른 변화를 가져왔다는 점을 전제로 했기 때문이다. 특히 본고는 전후 발간된 여성지인 『여원』⁴⁾이 전후 여성문단의 형성과 여성문학의 제도화에 기여한 점을 실증적인 자료를 들어 밝힐 것이다. 『여원』, 『여성동아』는 각각 여원신인문학상, 여성동아 장편소설 공모 등의 제도를 통해 신춘문예나 문학지 추천 중심의 기존 등단 제도에 변화를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독자문예란을 만들어 여성(작가)들의 글쓰기 영역을 확장했다. 따라서 『여원』을 비롯한 전후 여성잡지들은 여성작가군의 확대, 여성작가들의 글쓰기 장 확보, 여원신인문학상 제정을 통한 여성작가 발굴, 연재소설을 통한 여성문학의 대중성 확보에 크게 기여했다. 또한 여성작가들은 문학작품 외에 시론, 탐방기, 고민해결상담란 등의 여러 글쓰기를 통해 자기 위상을 확고히 하고 당대 여성들이 지녀야 할 교양이나 지켜야 할 규율을 제시하는 역할을 했다. 때문에 전후 문학제도와 여성문단의 형성과정에서 여성잡지가 끼친 영향력은 무시할 수 없을 정도이다.

2. 전후 여성문단의 형성과 『여원』의 전략

문학 행위가 일종의 개인과 집단의 사회적 행위라면 문학도 일종의 사회제도로 볼 수 있다. 문학제도란 문학작품의 발생, 소통, 소비, 재생

4) 1955년 10월 창간되어 1970년 4월 종간된 195·60년대 대표적인 여성종합교양지이다. 신태양사에서 발간한 『여성』과 함께 독자들의 호응이 높았으며, 식민지 시기 여성지와는 달리 교양함양뿐만 아니라 상업적 성격도 띠고 있었다.

산의 역사를 해명하는 것이다. 즉 문학제도 연구는 근대비평의 발생과정, 문단이 형성되는 사회적 이유, 상업적 대중소설과 정통소설의 분화현상, 문학사의 정전 확정과 변화, 문학 저널리즘의 문제 등 문학사의 실질적인 변화요인을 연구하는 것이다.⁵⁾

같은 맥락에서 여성문학제도가 포괄하는 범주는 여성작가들의 등단 경로, 사회 활동과 문단활동, 매체와의 관련성 및 대중적 글쓰기의 양상, 여성독자와 이들의 문학소비 및 수용 양상 등이다.

지금까지의 통상적인 여성문학사 구분에 따른다면 나혜석, 김명순, 김일엽을 제1기 여성작가, 박화성, 강경애, 이선희, 백신애, 최정희, 모운숙, 노천명을 제2기 여성작가들로 분류할 수 있다. 본고가 주로 살펴 볼 전후 여성문학제도에는 소위 제3기 여성작가들인 임옥인(『문장』, 1940), 한무숙(『신시대』, 1942), 손소희(『백민』, 1946)(이상 1940년대 해방 전후 등단)를 비롯 강신재(『문예』, 1949), 박경리(『현대문학』, 1955-1956), 한말숙(『현대문학』, 1956)을 비롯한 다수의 여성작가들이 포함된다.

1950년대 중반 이후 여성작가들의 수는 대폭 늘어난다. 등단경로 역시 잡지/문예지 추천(박경리, 구혜영, 송원희, 한말숙, 손장순, 이정호, 최미나, 송숙영 등), 신문사 장편소설 현상공모(이석봉, 이규희, 김의정, 전병순 등), 신춘문예(정연희, 이세기, 박순녀 등) 등으로 다양해졌다. 이처럼 전후에 여성작가군이 늘어난 이유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찾아볼 수 있다. 첫째, 1950년대 한국전쟁 이후 문예지, 종합잡지 등 출판물들이 늘어났고 이 출판물들이 다양한 경향의 작가들을 원했기 때문이다. 둘째, 글쓰기 욕망 및 역량을 지닌 고등교육을 받은 여성들의 수가 늘었기 때문이다. 이같은 점은 『여원』신인문학상에 응모하거나 당선된 예비작가들의 이력에서도 확인되는 바인데 교사, 기자 등이 많으며 전업

5) 이현식, 『한국 근대문학 형성의 사회사적 조건』, 『제도사로서의 한국 근대문학』, 소명출판, 2006, 36쪽.

주부라 하더라도 여학교(고등학교) 이상을 졸업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⁶⁾ 여성잡지는 문화나 교양에 관심있는 고학력 여성독자를 흡수하게 되는데 이 여성독자들이 자신들에게 친숙한 매체인 여성잡지를 통해 작가되기를 실현한 경우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지는 특유의 대중적, 상업적 성격으로 인해 문학제도가 제시하는 기준 중 하나인 본격문학의 범주 속에서 논의되지 않았다. 그 외중에 『여원』이 택한 전략은 독특하다. 『여원』은 창간호에 ‘여류문예작품현상모집’ 공고를 내고, 단편소설, 시, 수필 분야로 나누어 작품을 모집하였다.⁷⁾ 심사위원 명단에는 백철, 조연현, 최정희(소설), 서정주, 조지훈, 모윤숙(시), 마해송, 조풍연(수필)이 들어있다. 당시 문단을 대표하는 작가들을 동원함으로써 등단제도로서의 위상을 확립하려 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특히 최정희(소설), 모윤숙(시)이 심사위원 명단에 들어가 있는데, 이들이 제2기 여성작가로서, 식민지 시기뿐만 아니라 해방과 한국전쟁 이후 지속적으로 여성문학 장을 대표한 인물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처럼 『여원』은 여원신인문학상 심사위원으로 김동리, 안수길, 정비석 등의 소설가, 서정주, 조지훈, 박두진, 김현승 등의 시인들뿐만 아니라 박화성, 장덕조, 최정희, 임옥인, 모윤숙, 김남조 등 제2기 여성작가들을 적극 끌어들이었다.⁸⁾ 여원신인상 제도가 일회성에 그

6) 가령 여원 창간기념 <여류현상문예> 당선자의 프로필을 보면 단편소설 1석 당선자 박정자(경남 고성여자중학교 근무), 2석 박기원(서울신문, 경향신문 기사를 거쳐 현재 가정생활), 수필 1석 진소희(사범학교 졸업, 교편생활)로 되어 있다. 여원 1주년 기념 <여류현상문예> 당선자 프로필에는 단편소설 2석 당선자 최예순(전직교원), 시 1석 박정희(서라벌예대 문창과 2년 휴학 중), 2석 김선영(서울 사범학교 본과 3학년 재학 중), 수필 1석 최미나(서라벌예대 중퇴)라고 되어 있다. 당선자 대부분이 고등학교 이상 졸업자이며, 교원이나 신문기자 경력이 있거나 여대생이다.

7) 『여원』 1956년 1월호는 <여원 창간기념 여류현상문예>에 소설 64편, 시 206편, 수필 39편이 응모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특히 단편소설 분야에 2석으로 당선된 박기원은 이후 1960년대 여성문학 장에서 활동하게 된다.

치지 않은 것은 첫째, 『여원』이 폐간되기까지 총 14회⁹⁾에 걸쳐 지속적으로 운영된 점, 둘째, 박기원(1956.1), 최미나(1958.1), 전병순(1961.1) 등 『여원』으로 등단한 작가들이 1960년대 여성문학 장에 안정적으로 편입되었던 데서도 알 수 있다. 즉 『여원』은 여성-신인들이 등단할 수 있는 장을 독자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기존 문학제도와는 다른 길을 걷은 것이다.

여성작가들은 좌담회, 회고록¹⁰⁾ 등의 필자로 등장하여 자신들의 글쓰기 행위에 대한 이야기를 함으로써 잠재적인 여성독자들의 호기심을 충족시켜 주기도 했다. 가령 1956년 1월 호 기사에는 최정희의 『여류작가가 되려는 분에게』와 노천명의 『여류시인이 되려는 분에게』가 나란히 실려 있다. 내용은 여성작가로서의 성적 특성보다는 세상살이의 어려움, 사람됨, 개성 등을 언급하는 일반론에 머무르고 있다. 1956년 7월호에서는 「나는 이렇게 해서 작가가 되었다」라는 제명 하에 손소희, 임옥인, 최정희가 자신의 등단 동기와 과정을 밝히고 있다. 내용은 이 작가들이 다른 지면에서 등단 경위를 밝힌 것과 중복되어 별다른 것은 없다. 다시 말해 『여원』에 실린 작가들의 문학론이랄지 작가론은 본격적인 문학론으로서의 성격을 띠기보다는 문학에 관심있는 여성-독자들을 어디까지나 교양의 차원에서 흡수하는 정도의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여성작가들의 좌담회는 식민지 시기 종합지나 문예지에서의 좌담회

8) 1959년 1월호 발표를 보면 소설 분야 심사위원이 박화성, 장덕조, 손소희로 모두 여성작가로만 구성되기도 했다.

9) 분야는 시, 소설, 수필 장르로 동일하며, 1956년 1월호부터 1969년 1월호까지 매년 1월호에 발표되었다.

10) ‘화성문학 40년의 적나라한 자서전기’라는 문구가 붙은 박화성의 『눈보라의 운하』와 모운숙의 회고록 『회상의 창가에서』가 대표적인 예이다. 더욱이 박화성과 모운숙이 식민지 시기 소설과 시 장르를 대표하는 작가로서 전후 여성문단에서 차지했던 위상을 생각해 보면 『여원』이 여성문학 장의 창출에 영향을 끼쳤음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와 비슷한 면모를 띠고 있다. 1960년 10월호 『좌담회-문학하는 여성에게』(사회 손소희, 참석자 박화성, 김남조, 박기원)를 보면 “제6회 여류 신인상 모집에 제하여 여성과 문학이라는 제목으로 좌담회를 개최한다”고 되어 있다. 내용은 ‘문학을 시작한 동기, 나의 문학수업과 감명깊었던 명작들, 작가의 체험, 문학과 가정은 양립될 수 있는가. 문학소녀에게 주는 어드바이스’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좌담회는 여성지에서 여성작가와 여성문학을 여성독자를 포섭하기 위한 주요 전략으로 삼으면서도 소위 ‘문학적’인 것을 가볍게 다루는 전형적인 면모를 보여준다. 시기적으로 거리가 있지만 『현대문학』지에 실린 좌담회 『여류작가의 애환』(『현대문학』, 1966.7, 사회 조연현, 참석자 박경리, 한말숙, 김남조, 홍윤숙, 임옥인, 손소희, 강신재)은 문예지에서도 독자적인 주제로 묶여 질 만큼 전후 여성작가 집단의 위상이 무시 못 할 정도에 이르렀음을 보여준다. 주제는 ‘문학을 하게 된 동기, 시에서 출발, 문학과 협잡, 가정은 인생의 기반, 귀여움받는 여류, 여류의 작가적 장단점, 비평에의 불신, 예술윤리위에 대하여, 여류문인협회의 진로’이다. 여성작가들이 대부분 시에서 출발해 소설 쪽으로 선회했다는 점을 밝히고 있는데, 그 연유를 따지는 대목이 주목을 요한다. 참석자들은 “현재까지 여류시인들은 직설적인, 주정적인 서정적인 자기생활”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반성을 곁해 여성작가와 소설 장르 간의 상관성을 “여성은 생활적이고 남성은 정신적”이기 때문에, 혹은 “잔소리쟁이이기 때문”에 소설가가 많다고 말하고 있다. “여류작가가 신문소설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참석자들은 소설 장르가 대세인 점을 인정하면서도 대중소설 영역을 여성작가들이 장악하고 있는 데 대해 우려를 표하고 여류작가이기 때문에 문단에서 귀여움을 받는다는 식의 생물학적 환원론을 스스로 인정한다. 이런 발언들은 여성작가들이 기존 문학제도가 요구하는 성별의식을 내면화했음을 보여주는 징표라 할 수

있다.

1963년 11월호에 실린 『창간8주년 기념 지방강연회 보고』는 당시 여성작가들이 사회에서 차지하는 위상을 알려주는 지표역할을 한다.¹¹⁾ 영남지역-박경리, 박기원, 허근욱, 호남지역-손소희, 전병순, 충남지역-최정희, 조경희, 추은희, 강원지역-장덕조, 정연희가 강사로 나선 이 대규모 강연회의 주 청중들은 여학생, 가정주부, 직장여성 등이었다고 한다. 주제는 주로 여성과 문학, 여성과 교양 등인데 당시 여성들의 교양을 함양하는 대표적인 지표로서 문학이 역할을 했다는 점, 소위 문학을 동경하는 여성 독자층이 많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여원』은 문학을 제외한 다른 기사에서도 여성작가들을 필자로 적극 활용하면서 전후 여성문단의 형성에 모종의 영향을 끼쳤다.¹²⁾ 『여원』이 여성작가들을 주 필진으로 삼아 중산층 여성이나 여대생 독자들을 대상으로 사회적 문제나 여성 교양을 의제화했음은 1963년 12월호 ‘100호 기념 특집’에서 그간 필자에 대한 통계를 제시하는 데에서도 잘 드러난다. 통계에 따르면 남성필자 73%, 여성필자 27%이며, 직업별로는 소설

11) 1965년 4월호 『르뽀특집-여성의 사회과학(부제목 신예 여류작가들의 보고)』는 저널리즘이 신진 여성작가들의 새로움과 여성작가로서의 희귀성을 활용하는 예를 보여준다. 한말숙, 홍성자, 구혜영, 박기원, 김아란, 전병순 등의 필자가 경찰백차, 가정법원, 영화촬영소, 교도소, 윤락여성선도소 등을 체험하고 쓴 글을 게재하였다. 또한 1968년 9월호에는 ‘여류작가’들이 논산훈련소를 체험한 체험기가 실려있다. 여류소설가로는 최정희, 임옥인, 손소희, 구혜영, 박순녀, 송원희, 최미나, 허근욱, 전병순이, 여류시인으로는 홍윤숙, 조애실, 추은희, 김윤희가, 수필가로는 조경희, 전숙희가 참가했다. 1960년대 여성문학 장의 대표격인 인물들이 총망라되어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기획은 당대 여성문학 장이 국책에 동조함으로써 체제내화된 면모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실제로 전병순이 대표집필한 글에서는 ‘한국군대는 문명군’이며, 우리는 ‘대한민국에 충성을 다하겠다고 다짐’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는 국가 담론에 대한 무비판적인 동일시를 보여주는 예이다.

12) 『여원』의 시기별 변화 추이를 보면 1950년대에는 여성문학과 여성작가 관련 담론들이 많은 데 반해, 1960년대 중반 이후 잡지의 체제가 의식주를 비롯한 일상적이고 소비적인 문화에 대한 정보 중심으로 바뀌면서 문학 관련 쪽지는 크게 줄어든다.

가, 교수, 삽화만화가, 시인 순이라고 되어 있다. 여성지임에도 불구하고 남성필자가 여성필자에 비해 비중이 월등하게 많은 것은 이 잡지가 ‘교양함양’에 목적을 두고 일정 정도의 지식을 갖춘 계층을 주 독자로 상정하고, 남성필자들이 지닌 담론의 권위에 의존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여성 필자의 경우에도 소설가, 시인, 수필가의 비율이 높다. 여성 문학인들은 작품활동을 통해서뿐만 아니라 좌담회, 탐방기, 독자상담란, 권두언 등 다양한 코너에서 여성-교양 담론을 주도하였다. 따라서 여성 작가가 지식인으로서 여성 교양 담론의 권위자로 인정받았다는 점은 여성문학 제도를 확립하는 데 모종의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추측된다.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여원』은 문학내적으로는 ‘여원신인문학상’ 제도를 통해 신진여성작가를 배출하고, 기존의 제2기 여성작가들을 심사위원으로 활용함으로써 여성문단의 형성에 기여했다. 문학외적으로는 여성작가들을 좌담회, 강연회, 시론, 독자상담란의 주요 필자로 포섭함으로써 여성 독자들의 요구에 부응하였다. 이처럼 『여원』이 여성작가를 활용하는 양상은 당시 『사상계』, 『신동아』 등의 종합교양지, 『현대문학』, 『문예』, 『자유문학』 등의 문예지가 여성작가와 여성문학을 배치하는 데 소극적이거나 여성작가들이 대중성과 상업성에 영합하였다고 비판하는 것과 대비된다.

3. 『여원』과 여성문학 장의 형성

『여원』은 전후 여성작가들이 작품을 발표하는 지면을 제공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들을 여성문학 장의 주역으로 적극 호명하면서 포섭과 배제의 전략을 구사하였다. 가령 좌담회 「여류예술계의 전망」(1956년 1월) 중 ‘각 계의 최초는?’이라는 항목에서는 여성작가 중 최초로 해당하

는 인물들, 현재 활동 중인 작가들의 목록을 제시하고 있다. 이 목록은 여성문학 장이 포섭한 작가들이 누구인지, 활동 중인 여성작가에 대해 어떻게 인식했는지 현황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된다. 가령 “시는 김일엽, 김탄실, 장정심, 김우남(김오남), 모운숙 씨 등이 처음에 나왔고, 작고한 백국희라고 있다. 소설로는 김말봉, 박화성 씨가 등장했고, 이들보다 먼저 강경애 씨가 있다. 현재 증견으로 활약하는 이들로는 모운숙 씨 뒤에 이선희, 최정희 씨가 나오고, 장정심, 주수원, 김오남. 그 다음 대가 장덕조, 임옥인, 손소희, 한무숙, 강신재, 전숙희 씨가 있고, 시에서는 김남조, 이봉순 씨를 들 수 있다”고 정리하고 있는데 대체로 나혜석, 백신애를 제외한 1930년대 여성작가군을 포괄하고 있으며, 당대 활동 중인 여성작가들의 계보를 요령있게 정리하고 있다. 또한 ‘각 분야 신인들과 앞으로의 전망’이라는 항목에서는 김남조 씨가 전도가 유망하다는 것, 소설은 “사변 전에 강신재가 나온 후 6, 7년간 소설가가 안 나왔다가 박경리가 나왔다”는 점에 이례적으로 주목하고 있다. 1955년 12월호에서는 한 해를 총결산하면서 소설에서 임옥인, 손소희, 강신재가 많은 활약을 했고, 『현대문학』지에 박경리가 추천을 받은 사실을 밝히고 있다. 박경리의 등단이 강신재 이후 여성문학 장에 의미있는 사건이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여원』이 신진여성작가 중에서도 박경리¹³⁾에 대해 호의적이었다는 징표는 몇 가지 더 있다. 1958년 4월호에는 『문학을 하며 산다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한무숙과 박경리 두 ‘여류’ 수상 작가의 대담이 실려 있다. 한무숙은 『감정이 있는 심연』으로 아세아재단의 아세아문학상을, 박경리는 『불신시대』, 『영주와 고양이』로 현대문학사의 신인문학상을

13) 박경리는 『여원』에 장편 『성녀와 마녀』(1960년)를 연재했으며, 『시장과 전장』(1964)으로 여원주최 제2회 ‘한국여류문학상’을 수상하였다. 『여원』이 강신재 이후 새로운 여성작가의 동향에 대응했음을 보여주는 또다른 증거라 할 수 있다.

수상하였는데 “여류작가 둘이 동시에 문학상을 받은 일은 유례없는 일” 이기에 다룬다고 밝히고 있다. 같은 해 7월호에서는 제1회 여원현상문예입선자인 박기원의 『애련』과 2회 입선자인 허남이의 『산록』을 실고 있다. 이처럼 『여원』은 등단제도와 문학상이라는 기존 문학제도의 권위를 수용하면서 새로운 여성문단 창출을 시도했다.

『여원』은 당대 활동 중인 여성작가들뿐만 아니라 여성문학 장의 형성에 기여한 식민지 시기 여성작가들의 존재를 부각하는 담론들을 배치함으로써 여성문학의 계보작성에 관심을 보였다. 『특집:남성 눈으로 본 여성평전 20인』(1962년 10월)에서는 김일엽, 박화성, 모운숙, 최정희가 여성문학인의 대표격으로 소개되었고, 『특집:한국 최초의 여성들』(1966년 10월)에서는 여성작가들 중 ‘문단의 신여성, 시인 김명순’과 『신여자』의 주간, 잡지 편집, 김일엽’을 소개하였다. 특이할 만한 점은 작품보다는 사생활로 인해 남성필자들의 악의적인 비평의 대상이 되었던 김명순을 비교적 객관적인 시각에서 다루었다는 점이다. 가령 “자만심은 강할망정 선량하고 절대로 경박한 창부 타입의 여자가 아니요, 성적인 면에서는 지극히 담백했다고 하는 분이 많다”, “쓰러린 개척자의 생활을 신기한 장난기로만 바라볼 뿐 이해하고 이끌어갈 빛을 내게 해줄 아량이 없었던 그 시대의 남성들에게 책임이 있지 않을까?”라며 식민지 시기 여성작가들이 정당한 평가없이 남성적 시각에 의해 재단되었던 점을 비판하고 있다. 이처럼 『여원』은 문단의 ‘최초’를 반복적으로 밝힘으로써 이른바 ‘기원에의 욕망’을 드러낸다. 그동안 여성문학사에서 배제되었던 제1기 여성작가들을 호명하는 것, 식민지 시기 여성작가들의 존재를 언급하는 것은 이 잡지가 여성문학 장 내지 계보에 관심을 기울였음을 뜻한다.

『여원』은 여성작가들의 장편소설들을 꾸준히 연재함으로써 195·60년대 문단의 또다른 지배적 경향이라 할 수 있는 소설의 대중화에 기여

했다. 『여원』 수록 여성작가 장편소설들의 목록을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최정희 『흑의의 여인』
 김말봉 『방소탑』
 장덕조 『현가』, 『연지』
 박경리 『성녀와 마녀』
 강신재 『청춘의 불문율』, 『그대의 찬손』, 『오늘은 선녀』
 박화성 『바람니』, 『눈보라의 운하』
 허근욱 『내가 설 땅은 어디냐』
 김일순 『애원은 비취처럼』
 정연희 『목마른 나무들』
 이규희 『꿈의 배반』
 박순녀 『숲속에 가슴속에』
 최미나 『흐느끼는 백조』

언뜻 보아도 박화성, 김말봉, 장덕조, 최정희, 임옥인, 손소희로 이어지는 식민지 시기, 해방 이후 여성문학 장의 중심에 있던 작가들이 망라되어 있다. 신진 여성작가들인 박경리, 정연희, 이규희, 박순녀, 최미나는 이후 1960년대 여성문학 장의 주요 인물로 자리한다.

연재소설들이 끼친 영향은 여성문학 제도의 한 축을 이루는 여성독자들의 반응¹⁴⁾에서도 감지된다. 1957년 10월호 ‘독자의 편지’ 중에는 “연재소설이 독자에게 주는 독서열의 양양을 참작하시와 질적으로 우수한 연재소설을 한 두 개 더 실어주시시오”라는 내용이 있다. 같은 해

14) 여성독자들은 문학시장의 소비자이자 글쓰기 욕망을 지닌 주체이기도 했다. 1963년 10월 ‘편집자에게 보내는 편지’에는 ‘문학소녀’에 대한 흥미로운 글이 실려 있다. 독자문예란에 입선되는 사람이 항상 같으며, 이들의 시는 『여상』, 『가정생활』에도 실리므로 문예란을 늘려 일반인에게도 공개하라는 내용이다. 문학에 관심있는 여성독자들이 자신들의 작품을 신고 다른 사람들의 작품을 평가하는 주요 수단이 여성지였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12월 호에도 연재소설을 셋 이상 실어달라는 독자의 요구가 실렸다. 여성지가 장편연재소설을 한 호당 2-3개 실었던 것은 장기적으로 독자를 확보하기 위한 전략이었을 것이며, 여성작가 또한 높은 원고료, 집필 기회 확보 등 경제적인 이유에서 장편소설 집필을 선호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여원』을 비롯한 여성지들이 여성작가들의 장편소설 집중화, 대중적 글쓰기를 주도했고, 이런 현상이 당시 문학제도에 모종의 영향을 미쳤다는 점은 다음과 같은 글에서도 확인된다.

여류작가들이 인기상승의 호경기를 구가할수록 남류작가(?)들은 어쩔지 고요한 동면 속에 빠지고 있지 않은가. 바야흐로 여류문학의 전성기에 접어들어 남류문학(?)이 위축되어 맥을 못 추게 되었다는 얘기가.

본래 여류문학이란 것이 우리 문단의 특산물인지 몰라도 그것이 더욱 인기품목으로 등장한 비결은 어디에 있었을까. 여기에 대한 분명한 진단은 오늘의 문학현실을 위해서 절실한 문제이기도 하다. 말하자면 여류문학이 여짜서 남류문학보다도 더 값비싼 대가를 받게 되었는가 하는 수수께끼를 풀어보자는 얘기가.

이 실마리는 여류들의 창작물들이 어떠한 마력으로써 독서계를 파헤쳐 가는가를 찾아내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으리라. 본시 작가가 자기의 영토를 확대해가는 첩경이 매스컴에 재빨리 편승해야 한다는 얘기는 거의 낡은 상식이다. 많은 여류들이 이같은 불문율에 민감히 적응해가는 기질이 남류보다도 선천적으로 예민한 탓일까. (중략)

남류작가들이 본격문학이란 좁은 영토 속에서 담보하고 있을 때 여류들에겐 많은 여성지와 대중지로 그 영토를 얼마든지 뻗어갈 수 있었다는 객관적 사정을 감안할 수 있을 것이다.

거기에도 여류들이 애초에 순문학이나 본격문학에 참여했다고 하더라도 오늘의 매스컴의 생리에 누구보다도 앞질러 영합해갔다는 증거가 아닐까. 실상 오늘의 인기소설이란 것이 거의 에로물이고 그 작가가 일부 여류

들이란 것을 상기한다면 지나친 얘기라고 목살하기 어렵다. (윤병로, 『여류문학이 가는 길』, 『현대문학』, 1969.7)

위 글은 여류문학의 전성기가 도래한 이유를 “여성지와 대중지로 그 영토를 얼마든지 뺏어갈 수 있었다”는 데서 찾으면서 이같은 현상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필자는 남류작가의 본격문학(순문학):여류작가의 대중문학을 이분법적으로 설정¹⁵⁾하고 여성작가들을 후자의 범주에 넣고 있다. ‘여류문학’, ‘여류작가’라는 명칭 자체가 남성 중심의 문학 제도가 생물학적 성차 관념에 기반해 만들어 낸 용어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런데 위 글은 여기에 더해 ‘남류문학’, ‘남류작가’라는 명칭을 새로 만들어내면서까지 여성문학의 부상을 조소어린 태도로 경계하고 있다. 이같은 접근태도는 기실 당시 기존문단의 지배적인 입장일 터인데 여성문학의 부상에 따른 위기감을 역설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4. 한국여류문학상과 여성문학전집, 여성문학 정전의 형성 원리

전후 여성문학 장은 1965년 9월 8일 <한국여류문학인회>가 결성되고 이들이 『한국여류문학전집』, 『한국여류문학 33인집』(편집위원 강신재, 김남조, 손소희, 전숙희, 조경희, 홍윤숙, 신구문화사, 1964) 등 이른바 독자적인 정전만들기¹⁶⁾를 하면서 공고해진다.

15) ‘한국여성의 독서 경향을 재검토한다’라는 제하의 좌담회(1957년 10월)는 『여원』 소재 소설에 대한 독자들의 반응이 이원적임을 밝히고 있다. 학생독자는 순수문학작품을, 일반 여성들은 대중성이 있는 작품을 선호하고 있으며, 연재소설에 대한 기대가 크다는 것이다. 이후 『여원』이 장편연재소설을 매호 2-3편씩 수록한 것으로 보아 대중성을 선호한 일반 여성들의 요구를 어느 정도 수용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6) 정전이란 학교 교과과정 속에서 공인된 텍스트, 모방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인정

『현대여류문학 33인집』은 “현대 여류문인 33인의 자선(自選) 앤솔로지”로서 “박화성 여사의 회갑을 기념하는 모임에서 이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¹⁷⁾ 출간되었다. 여성문학과 관련된 선집, 전집은 식민지시기에 발간된 『현대조선여류문학선집』(조선일보출판부, 1937), 『여류단편결작집』(조선일보사, 1939)이 최초라 할 수 있다. 전자는 시, 소설, 수필 장르를 망라하고 있고, 후자는 소설 작품만을 묶은 것이다. ‘여류’라는 이름으로 비슷한 시기에 전집 내지 선집이 두 번 간행된 것은 당시 근대 문학제도에서 ‘여류’가 근대문학 장의 일부로 편입되었음을 알리는 징표라 할 수 있다. 하지만 그와 같은 편입이 불안정한 것임은 동일한 작가라도 수록된 작품이 다소 다른 점, 소설이나 시처럼 작가의 본령에 해당하는 장르보다는 수필 장르의 수록 편수가 훨씬 많다는 점에서도 확인된다. 물론 작가에 따라서는 작품의 질이나 편수가 기대에 못 미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여성작가에게 적합한 장르로 수필이 선호된 것은 당대 문학 제도나 정전에서의 편입이 순조롭지 않았음을 반증한다.¹⁸⁾

받은 텍스트를 뜻한다. 정전 형성의 문제는 작가뿐만 아니라 텍스트의 가치를 생산 또는 재생산하고 그 가치를 소유하려는 독자나 학교, 출판사와 같은 제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정전에 해당하는 텍스트는 사회 역사적 맥락, 당대 지배 이데올로기에 따라 ‘재’ 평가되면서 선택, 배제된다. 정전을 구성하는 지배적인 이데올로기 중 하나가 젠더정치학이라 할 수 있다. 정전과 여성문학 간의 배타적인 관계에 주목하는 일군의 페미니스트들은 ‘정전’ 자체가 남성중심적인 이데올로기에 따라 구성된 것이므로 여성문학은 정전을 만들기보다는 정전 자체를 해체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기도 한다. 다시 말해 여성주의의 관점에서 정전을 바라볼 경우 남성중심적인 정전에 대응하는 여성중심적인 대안적 정전의 확립을 주장할 수도 있고, 정전 자체를 해체하고자 주장할 수도 있다. 하지만 우리 근대문학사와 문학제도에서 여성문학이 자기정체성을 확립해가는 과정을 탐사하고, 궁극적으로는 여성문학사의 형성 원리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정전의 해체나 대안적인 정전 이전에 근대문학의 정전 확립 과정에서 여성문학은 어떻게 선택/배제되었는지, 여성문학이 자체 정전을 확립하면서 채택한 원리는 무엇인지를 먼저 규명해야 할 것이다.

17) 1964년 7월호 『여원도서실』 기사 내용을 참고할 것.

18) 두 선집에 실려 있는 작가와 작품들의 목록을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전후 여성문학 선집/전집에 해당하는 『현대 여류문학 33인집』과 『한국여류문학전집』은 ‘여류문학상’과 더불어 여성작가들의 정전 형성 욕망을 드러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식민지 시기 여성문학 선집/전집의 경우 출판사와 편집자에 의해 작가와 작품이 수동적으로 취택된 상태에서 발간되었다면, 전후 선집/전집은 여성작가들이 편집자로 참여하여 자발적으로 만든 것이며, 장르에 대한 개념도 식민지 시기에 비해 좀더 명확하다.

『현대조선여류문학선집』(조선일보출판부, 1937)

강경애-어둠

김말봉-편지(소설), 오월의 노래(시)

김오남-유곡, 그리던 곳, 원망, 시름, 죽은죽하생각(시조)

김자혜-비에 젖은 이층, 어머니의 설음(수필)

노천명-바다의 향수, 밤의 찬미, 국화제, 만월대, 교정(시)

이선희-계산서(소설), 곡예사, 한여름밤의 꿈(수필)

모운숙-나의 도시, 라일락숲으로, 한밤의 서곡, 늙음, 밤호수(시), 오월 隨想, 다렛
골 촌락에서(수필)

박화성-춘소(소설), 빛을 그리는 마음, 낙화의 氣(수필)

백국희-코스모스, 녹음, 비오던 그날, 고적(시), 봄의 소야곡(수필)

백신애-꺼래이(소설), 자숙, 금비녀(수필)

장덕조-자장가(소설), 사월 하늘, 남국에 맺는 꿈(수필)

장영숙-池邊神話, 삶은 수고로워(수필)

장정심-맑은 그 눈, 못지 마오, 고대(시)

주수원-저울질하는 마음이요, 편물, 문어진 탑, 내맘은 나에게 왕국이외다(시), 바
늘, 실패, 달(시조), 진달래(수필)

최정희-흥가(소설), 자화상, 봄 우울(수필)

『여류단편결작집』(조선일보사, 1939)

강경애-지하촌

장덕조-한야월

이선희-연지

박화성-춘소

최정희-곡상

노천명-사월이

백신애-채색교, 糊塗

『현대 여류문학 33인집』에 실린 작가와 작품의 목록은 전후, 1960년대 여성문학의 지형도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작가와 작품 목록은 아래와 같다.

〈소설〉

- 강신재 「황량한 날의 동화」
- 김의정 「발판」
- 박기원 「황혼」
- 박화성 「부덕」
- 손소희 「감이 익는 오후」
- 손장순 「배리(背理)의 심연(深淵)」
- 송숙영 「언챙이」
- 윤금숙 「정」
- 임옥인 「후처기」
- 장덕조 「저돌(猪突)」
- 전병순 「박포씨(博圃氏)」
- 정연희 「어느 하늘 밑」
- 최미나 「매화들」
- 최정희 「귀뚜라미」
- 한말숙 「방관자」
- 한무숙 「유수암」

〈시〉

- 김남조 「겨울바다」 외
- 김선영 「설야에」 외
- 김숙자 「항아리의 변」 외
- 김지향 「자유」 외
- 김혜숙 「3월」 외
- 김후란 「비익」 외

모운숙 「5월 넥타이 씨」 외
 박영숙 「실명시인」 외
 추은희 「가을의 시」 외
 허영숙 「관음보살님」 외
 홍윤숙 「풍차」 외

〈수필〉

김일순 「혼자 남은 쟁아」 외
 김향안 「카페와 참종이」 외
 전숙희 「슬픈 여인들끼리」 외
 정충량 「바다의 추억」 외
 조경희 「비」 외
 천경자 「서커스의 향수」 외

얼핏 보기에 식민지 시기에 비해 작가군이 크게 늘었으며, 시나 수필 장르에 비해 소설 장르에 작가와 작품들이 다수 배치되어 있다. 식민지 시기와 연속성을 가진 작가는 박화성, 최정희, 장덕조(이상 소설)와 모운숙(시)인데 이들은 식민지 시기에서 전후로 이어지는 여성문학장의 형성과 정착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인물들이다. 이 선집 자체가 박화성의 회갑을 기념하여 만들어졌다는 점, 1년 뒤인 1965년에 <한국여류문학인회>라는 여성작가 집단 최초의 모임이 결성되었고 1대 회장이 박화성이었다는 점에 미루어볼 때 전후 여성문학 장은 식민지 시기 여성문학 장과의 연속성 속에서 자기 정체성을 확보했다고 볼 수 있다. 『한국여류문학전집』(1967)¹⁹⁾은 이와 같은 특성을 좀더 분명히 드러

19) 이 문학전집 체제에서 확연히 드러나는 것은 시 장르의 축소와 소설 장르의 대폭 확대이다. 전후 여성작가들의 수가 대거 늘어난 것파도 관련이 있을 것이다. 또한 이전 시기와는 달리 장르별 경계를 명확히 하고 있음은 시인이나 소설가의 수필작품은 신지 않은 데서 드러난다.

낸다. 전집에 실린 서문은 다음과 같다.

여류문학의 개척기에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의 사십여 년이라는 오랜 세월에서 줄기차게 뻗어 내려온 남존여비의 완강한 관습과 지극히 인색한 사회의 모든 여건에도 꺾임이 없이 꾸준히 자기의 문학을 키우고 확대시켜 온 우리 여성 문학인들의 창작 활동은 자기미화의 향기로운 개화라기 보다는 차라리 자기연소로 이루어진 피와 땀의 결정인 바로 그것이었다.

이제야 우리는 그 최초의 결정체로서 『한국여류문학전집』을 내게 되었다. 여성만의 작품으로 이렇게 알찬 전집 여섯 권이 간행된 것은 우리 문학사상 처음 일일 뿐만 아니라 현대 문학의 태동기에서부터 오늘까지에 여성작가들이 창작해 온 작품 수록의 집약이란 점에서도 가히 기념비적인 일이라고 자부하고 싶은 것이다. (후략)

즉 서문은 ‘여성만의 작품으로’ 전집 간행, ‘현대문학의 태동기에서부터 오늘까지에 여성작가들이 창작해 온 작품 수록의 집약’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다른 말로 하면 근대여성문학의 기원을 설정하고 정전을 형성하고자 하는 욕망을 강하게 드러낸 것이다. 그런 만큼 어떤 작가와 작품이 수록되었는지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

특히 『한국여류문학전집』 1권은 식민지 시기 여성작가들의 작품만을 수록하고 있다.²⁰⁾ 따라서 여성문학 정전의 확립이라는 측면에서 어떤 작가, 어떤 경향의 작품들이 선택되었는지, 그것이 식민지 시기 정전들과 모종의 관련성이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다. 작가와 작품들의 목록은 아래와 같다.

20) 식민지 시기 여성작가 작품들의 정전화와 관련하여 또 하나 흥미로운 점은 『여원』이 1967년 6월 <한국의 명작>란에 이선희 『계산서』, 8월 백신애의 『적빈』, 9월 강경애의 『모자』를 연속해서 소개한 것이다. 특정 시기에 1930년대 여성작가들의 작품들이 집중적으로 소개된 것 역시 여성독자들의 문학적 교양함양과 여성문학사의 정전에 대한 관심을 반증한다.

『한국여류문학전집』 1권-중단편소설(1)

박화성 : 하수도 공사, 비탈, 한귀, 홍수전후, 고향없는 사람들, 증언

강경애 : 지하촌

백신애 : 적빈

최정희 : 정적일순, 지맥, 찬란한 대낮

장덕조 : 정청궁 한아월, 곡성, 창백한 안개, 30년

김말봉 : 망령, 바퀴소리, 여심

1권에 실려 있는 작가들은 박화성, 강경애, 최정희, 백신애, 장덕조, 김말봉이다. 박정애의 지적처럼 나혜석, 김일엽, 김명순 등 1기 여성작가들의 존재는 배제되었으며²¹⁾, 2기 여성작가들 중에서도 작고한 강경애와 백신애를 제외하고는 해방과 한국전쟁 후에도 지속적으로 활동했던 작가들의 작품이 전집에 수록되어 있다. 2권부터는 일제 말기나 해방 후 등단한 작가들의 작품이 실려 있다.

『한국여류문학전집』 2권-중단편소설(2)

임옥인 : 월남전후

손소희 : 창포 필 무렵, 닳아진 나사, 감이 익는 오후, 그날의 햇빛은, 암피둘기, 지단에서, 어느 휴일, 정·동(대결2)

한무숙 : 돌, 감정이 있는 심연, 천사, 그대로의 잠을, 유수암

윤금숙 : 허망, 단짝

21) 박정애는 195-60년대 여성작가들이 1세대 여성작가들이나 나혜석, 김명순, 김일엽과의 동일시를 거부하고, 박화성, 최정희, 모운숙으로 대표되는 2세대 여성작가들을 인정함으로써 ‘여류’의 아비투스(아비투스)를 공유했다고 본다. 본고의 기본적인 문제의식이나 논지 역시 박정애의 주장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박정애, 『‘여류’의 기원과 정체성-50-60년대 여성문학을 중심으로』, 인하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3, 144~5쪽.

『한국여류문학전집』 3권-중단편소설

강신재 : 파도, 짧은 느티나무

박경리 : 전도, 불신시대, 풍경(A), 풍경(B), 환상의 시기, 평면도

정연희 : 정점, 창구있는 묘지

한말숙 : 장마, 노파와 고양이, 상처, 방관자

손장순 : 깎두기 씨, 미세스 마야

1-4권 소설, 5권 아동문학, 희곡, 수필 모음²²⁾, 6권 시에서도 알 수 있듯이 전집의 전체 체재는 소설 장르에 표나게 치우쳐 있다. 2-3권은 일제 말기나 해방 후, 전후 바로 등단한 작가들의 작품을 주로 수록하였으며, 4권은 1960년대에 막 등단해서 작품활동을 시작한 작가들의 작

22) 각 권 수록 작가들의 명단을 보면 1960년대 여성문학의 지형도가 넓어졌고, 그만 큼 글 쓰는 여성집단이 늘어났다는 점을 알 수 있다.

4권-구혜영, 박기원, 송원희, 최미나, 김의정, 전병순, 박순녀, 김녕희, 이정호, 이규희, 이석봉, 안 영, 오지영

5권(아동문학, 희곡, 수필)-

아동문학-신지식, 이영희, 남미영

희곡-김자림, 박현숙, 송숙영

수필-이명운, 조경희, 전숙희, 정충량, 김일순, 천경자, 전혜린

한편 전집 제6권에는 시만 수록되어 있는데 해방 전 여성 시인들 중에서는 모운숙과 노천명의 작품만 수록되어 있다. 해방 전 선집에는 수록되었던 식민지 시기 군소 여성시인들은 배제되었다. 또한 특이하게도 이 권에만 모운숙이 쓴 ‘서문’이 수록되어 있다. 다른 권에는 없는 서문이 시집에만 배치된 것은 해방 이후 여성문학 장에서 모운숙이 지닌 위상을 간접적으로 보여준다. 그가 쓴 서문에 따르면 시란 “민족과 시대를 떠나서 존재할 수 없다”. 시는 곧 민족의 정서라는 그의 발언은 일제 말기, 해방 후, 한국전쟁 기간 동안 지배담론, 국가 주도의 담론에 적극 동조했던 행보와 맞닿아 있다. 이처럼 모운숙은 시의 공공성을 내세우면서도 한편으로는 여성성을 특유의 자질로 규정하고 있다. 가령 “신사임당이나 허난설헌, 황진이 들에게서 볼 수 있는 저 여성적이며 모성적인 언어를 오늘의 시인들에게 전적으로 요구할 수 없게 되었다”는 발언은 여성성과 모성성을 현실적 맥락에서 파악하기보다는 언급한 전근대적인 여성에게서 찾고 있음을 보여준다. 모운숙의 여성성에 대한 인식은 지배적인 담론에서 강조하는 여성성, 여성의 역할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이다.

품을 대개 1편정도 수록하는 체재를 취하고 있다. 즉 『한국여류문학전집』은 여성문단의 원로부터 신진에 이르기까지 작가, 작품을 골고루 실었다는 점, 가능하면 많은 작가들을 섭렵하였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와 같은 전집의 체재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발간을 주도한 <한국여류문학인회>가 문학집단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른바 선택과 취사의 원칙보다는 포섭과 종합의 원칙을 취했다는 것이다.²³⁾ 물론 1960년대부터 문학전집과 선집의 간행이 빈번해지기는 했지만 『한국여류문학전집』의 경우 출판사를 바꿔가며, 여성작가들이 늘어남에 따라 권수를 늘려가며 여러 차례 간행되었다는 점이 다르다.²⁴⁾ 그만큼 출판 시장과 독자의 요구가 있었다는 것이고, <한국여류문학인회>가 전집 발간 사업을 지속적으로 주도함으로써 여성작가들을 결속시키고 여성문학을 제도화하는 데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이야기가 된다.

독자적인 전집 발간과 더불어 ‘한국여류문학상’은 여성문학 장을 공고히 하고, 여성문학 정전을 창출하려는 욕구를 보여주는 지표가 되는데, 그 주체가 바로 잡지 『여원』이다. 『여원』은 발간 100호 기념으로 ‘한국여류문학상’을 창설한다. 기획의도는 “여류문학의 전통을 계승하고 여류문단의 난만한 개화를 위하여”이고, 심사원칙은 “한국여류기성작가로

23) <한국여류문학인회>는 창립회원의 자격을 데뷔 이후 3년 이상의 활동 경력을 가진 여류문인으로 제한하여 시인 29명, 소설가 22명, 수필가 7명, 아동문학가 2명, 희곡작가 2명 등 모두 62명이 참가했다고 한다. 『한국여류문학전집』은 사실상 이 회원들의 작품들을 거의 모두 수록하고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때문에 등단 3년 차 이상이라 하더라도 1권-3권까지의 작가들을 제외하고는 작품 이력이 짧기에 4권의 경우 한 작가 당 한 작품씩만 수록된 모양새를 하고 있다.

정규용, 『글동네에서 생긴 일-60년대 문단이야기』, 문학세계사, 1999, 165~167쪽(박정애, 앞의 논문에서 재인용, 23~4쪽)

24) 필자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한국여류문학전집』은 <한국여류문학인회>편으로 해서 3회에 걸쳐 발간되었다. 1967년 전6권(삼성출판사), 1979년 전10권(한국교양문화원), 1983년 전5권(여원출판국)이 발간된 것으로 보인다.

해당기간에 신문, 잡지, 단행본으로 발표된 소설 중 심사위원회가 선정한 1편에 수상한다는 것, 심사위원은 5인 이상으로 구성한다”는 것이다. 이미 ‘여류신인문학상’을 통해 대중잡지 그것도 여성독자 대상 잡지로서는 희귀하게 여성들이 문학 장에 진출하는 통로 역할을 했던 『여원』은 이제 이미 여성문학 제도에 안착한 작가군을 대상으로 문학상을 만듦으로써 정전 형성의 욕망을 강하게 드러낸다. 이 여류문학상은 잡지가 폐간되던 때까지 6회에 걸쳐 수상되었으며, 그 목록은 아래와 같다.

- 제1회(1964. 10): 최정희 『인간사』,²⁵⁾ 심사위원 백철, 박영준, 안수길
 제2회(1965. 10) : 박경리 『시장과 전장』, 심사위원 김팔봉, 조연현, 황순원
 제3회(1966.11) : 강신재 『이 찬란한 슬픔을』²⁶⁾,
 제4회(1967.10) : 손장순 『한국인』, 심사위원 곽종원, 조연현, 황순원
 제5회(1968.11) : 전병순 『또 하나의 고독』, 심사위원 안수길, 최정희, 조연현
 제6회(1969.11) : 임옥인 『일상의 모험』, 심사위원 안수길, 황순원, 조연현

위 작가와 작품 목록에서 알 수 있는 사실은 <한국여류문학상>이 전후 여성문학 장을 대표하는 작가들을 확정짓는 역할을 했다는 것이다. 1회 수상자인 최정희는 이미 박화성과 함께 여성문단의 좌장으로 대접받았으며, 임옥인, 강신재, 박경리, 손장순, 전병순은 이미 여성문학 선집, 전집에 채택된 작가들로서 196·70년대 여성문단을 주도적으로 이끈 인물들이다. 또한 소설 중에서도 장·단편 구분을 명시적으로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는 장편소설만 선정되었다. 가령 4

25) 1960.8-10월 『사상계』연재, 1963.11-1964.3 『신사조』 연재

26) 1966년 12월호에는 염무웅의 『강신재론』이 잇달아 실려 있는데, “단어 하나를 고 심하며 선택하고 서구적인 조소적 문체로 이루어져 가는 그녀의 언어감각”이 뛰어나다는 평은 강신재론의 전형에 해당한다.

회 수상작가인 손장순의 경우 장편 『한국인』과 단편 『상처』가 물망에 올랐는데, 『상처』가 작품으로서는 완결성이 있지만, 『한국인』은 “작가의 의욕과 노력은 높이 사나 작가의식이 미약(황순원)”, “평면적인 구성, 순화되지 않은 체험적 요소 등 미흡한 점이 많음(조연현)”나 장편이고 스케일이 크고 작가의 의욕을 높이 사 당선작으로 뽑았다는 평이 나와 있다. 즉 형식이나 내용상의 결함에도 불구하고 장편소설이 선호²⁷⁾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당시 비평계 일각에서 ‘여류작가’들이 인기 소설, 연재소설을 양산하고 있다는 입장이 개진되었던 것도 이와 같은 여성문학 장의 움직임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물론 이처럼 ‘여성문학 전집’과 ‘여류문학상’이라는 두 가지 경로를 통해 여성작가들이 권위를 인정받게 되고 여성문학 장이 형성되는 과정이 기존 문학제도와는 다른 양상을 띠었다는 점을 명확히 밝히기 위해서는 이 작가들의 작품에 나타난 모종의 경향성을 추출해낼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추후 자세한 작품 분석을 통해 입증해야 할 부분이기는 하나 잠정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첫째, 작품이 담지한 시대적 배경과 이념이 한국의 근·현대사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이다. 즉 수상작들은 대개 식민지 시기, 해방 전후, 한국전쟁기, 전후부터 4.19 혁명까지를 연대기적으로 다루거나 전후와 4.19 혁명 후 가치관의 혼란 상태를 다루고 있다. 둘째, 여성의 운명을 다루고 있다는 것, 셋째, 젊은 세대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는 것, 넷째, ‘한국적인 것’의 정체성을 의제화함으로써 1960년대 중반 이후 가속화된 국가 이데올로기와 공모하고 있다는 점 등이다.²⁸⁾

27) 가설이기는 하나 『여원』의 장편연재소설이 거둔 성과, <한국여류문학상>의 장편 편중 현상은 1970년대 『여성동아』가 장편소설 현상공모제를 만들어 여성작가군을 배출하는 역할을 했던 데에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28) 이는 잡지 『여원』의 이념이랄지 성격과 어느 정도 관련이 있다. 『여원』은 전후 한

최정희의 『인간사』, 박경리의 『시장과 전장』이 향후 (여성)문학사에 서 차지하는 위상과 의미가 다른 작가들의 수상작과 다른 점 역시 규명해야 할 부분이다. 물론 ‘한국여류문학상’ 수상작은 『여원』이 내건 ‘여류문학 계승’이라는 명분보다는 신문/잡지 연재 -- 한국여류문학상 수상 -- 단행본 출간(제 몇 회 여류문학상 수상작이라는 레페르와 함께)의 순서를 밟으면서 상업적인 성공의 길을 걸었다는 점도 무시할 수 없다. 여성문학 장이 기존 문학제도와는 독립적인 ‘문학상’ 제정을 하는 과정에서 소설편중 현상, 장편화, 상업성과 같은 일정한 경향을 띠었다는 점은 1960년대 문단 내부에서 ‘여성작가’와 ‘여성문학’이 소비되는 양상을 보여주는 예라 하겠다.

5. 결론

전후, 그리고 1960년대는 여성작가에 대한 편견이 계속 재생산된 시기였다.

여류작가는 작가인 동시에 철두철미 여자여야 한다는 것이다. 바로 그 여자가 남자 이상으로 타락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남자보다는 좀 순결하다고 할 때 여류작가의 작품을 읽을 의미가 생긴다는 것이다. (정창범,

국사회가 급격히 서구화, 물질화되어가는 것에 대해, 그리고 여성이 그런 서구화 담론에 포섭되는 것에 대해 경계를 하였다. 이는 전통적인 여성성을 호명함으로써 여성을 훈육하고 서구화된 여성을 배제하는 것으로 드러난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의식주 전반의 합리화, 서구화를 패션, 음식, 미용, 영화 등 대중문화 기사를 통해 유포하기도 했다. 이와 같은 양가성은 5.16 군사혁명과 박정희 정권 수립 이후 급격히 여성성, 모성성을 체제내화하는 쪽으로 바뀌게 된다. 가정생활의 합리화, 과소비 규제, 출산 통제 등이 훈육의 대표적인 예들이다. 1960년대 중반부터 시작된 ‘한국여류문학상’ 작품들이 이와 같은 여성성의 제도화를 반영하고 있는지 여부는 향후 다른 글에서 규명할 것이다.

『여류작가의 경우』, 『현대문학』(1969.5)

위 예문은 여성작가에게 ‘여자여야 한다’, ‘순결해야 한다’는 성별 표시를 강제하는 당대 지배적인 담론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실제로 여성작가군의 급격한 증가에도 불구하고 이 시기에 비평의 영역에서 여성문학은 제대로 다루어지지 않았으며²⁹⁾, 다른 문예지나 종합지에서도 본격적인 여성문학, 여성작가 관련 글은 찾아보기 힘들다. 한 해의 문학계 동향을 정리하면서 간단하게 언급하거나 그나마 여성문학을 다룬다 하더라도 대중성이나 상업성과 관련하여 부정적으로 담론화되었다.

그렇지만 전후 여성문학은 기존 문학제도에 대해 나름의 응전력을 구사했던 것으로 보인다. 식민지 시기부터 활동하기 시작해 해방 이후까지 지속적으로 활동했던 일군의 여성작가들은 여성문학 장 내에서는 제1기 여성작가들과 군소 여성작가군을 배제하고, 독자적인 여성작가 집단을 결성함으로써 여성문학 내부의 위계화와 서열화를 주도했다. 『한국여류문학전집』은 남성이 주도하는 정전이 아닌 여성 주도의 독자적인 정전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또한 식민지 시기 전집에 수록된 여성작가들의 작품 목록이 해방 이후 정전화 과정을 거친 작품 목록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 역시 지속성이라는 측면에서 눈여겨 볼 대목이다.

또한 여성문학 장은 여성지라는 대중적인 매체를 통해 남성문학 장과는 다른 영역을 확보했다. 그 와중에 『여원』을 비롯한 여성지는 여성작가와 작품을 적극 활용하고 스스로 여성문학 장의 제도화를 꾀함으로써 다른 매체와의 차별성을 꾀했다. 여성지와 여성문학, 여성작가의 공생은 전후 여성문학이 새롭게 성취한 영역인 것이다.

29) 『여원』지의 단골 필자인 정충량의 경우 ‘평론가’로 명명되고 있으나 문학평론이 아닌 사회평론 쪽 글이 대다수이다.

□ 참고문헌

1. 1차 자료

『현대조선여류문학선집』, 조선일보출판부, 1937.

『여류단편결작집』, 조선일보사, 1939.

『한국여류문학전집』, 여원사, 1967.

『여원』, 『현대문학』.

2. 논문

김양선. 「일제 말기 여성작가들의 친일담론 연구」. 『어문연구』 127호.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06.

「여성작가를 둘러싼 공적 담론의 두 양식」. 『한국 근대문학의 형성과 문학 장의 재발견』, 소명출판, 2005.

박정애. 「‘여류’의 기원과 정체성-50-60년대 여성문학을 중심으로」, 인하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3.

심진경. 「문단의 여류와 여류문단」. 『한국 근대문학의 형성과 문학 장의 재발견』, 소명출판, 2005.

이현식. 「한국 근대문학 형성의 사회사적 조건」. 『제도사로서의 한국 근대문학』, 소명출판, 2006.

Abstract

The Formation of Women's Literary Ground
in the Post Korean War Period and *Yeowon*

Kim, Yang-sun

This thesis looks into how the *Yeowon*(The Garden of woman), the women's magazine in the post-Korean war period, influenced on the formation of women's literary circle and the ground of women's literature.

First, *Yeowon* brought up the new women writers through 'the prize of literature for the new figure', and accommodated the second wave women writers as examiners, so that contributed to the formation of women's literary circle. In the aspect of non-literary field, women writers were included as the main writers in the round table meeting, lecture, column, and consulting department for the satisfaction of reader's need. Second, *Yeowon* revealed the 'desire for the origin' as calling over the women writers of initial stage of modern, colonial period who had been excluded in the women's literary history. That is, it was concerned about the genealogy of women's literature. Third, *Yeowon* attributed to the popularization of novel by publishing full-length novel serially. Fourth, women's literary circle in the post Korean war period organized <Association of Korean Women Writers> and published <Literary Complete Collection of Women Writers>, so that strengthened their unity and institutionalized women's literature. Furthermore, the 'Prize of Women's Literature in Korea' solidified the ground of women's

literature, and intended to create their own canon. These characteristics shows the consumption of 'women writers' and 'women's literature'.

The ground of women's literature had the different, definite sphere with the ground of men's literature through the women's magazine. The women's magazine like *Yeowon* mobilized women writers and their works positively, and projected the institutionalization of women's literary sphere. So their mutual assistance is the new accomplishment of women's literature in the post Korean war period.

Key words : women's magazine, women's literary circle, women's literature, literary complete collection, canon, the institutionalization of women's literary sphere

■ 본 논문은 10월 30일 투고되어 11월 24일에 심사가 완료됨과 동시에 게재가 확정되었음.